

경기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91.7로 전년동월대비 11.8% 증가
 - 5월 서울 제조업부문 출하 증가, 재고 증가로 재고증가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백화점 및 대형마트 각각 증가
 -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1.9%, 대형마트 1.0%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7.4% 증가
 - 대형소매점 판매 증가는 계절변화로 소비활동이 늘어나 판매액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됨
- 5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 서비스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1% 각각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4.2% 각각 상승

고용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5월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8% 증가,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한 62.2%임
- 5월 서울의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41천명(2.9%) 증가한 4,995천명으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7천명(0.6%), 여자는 123천명(6.0%) 각각 증가
 - 청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0.4%) 3.4%p 차이를 보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6.2% 상승하며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
-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고용률은 상승
 - 5월 서울의 실업률은 4.2%로 남자는 5.0% 상승, 여자는 3.1% 하락
 - 5월 서울의 고용률은 59.6%로 전국의 고용률(59.1%)보다 0.3%p 높은 수준

부동산

- 4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4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32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6.6% 증가
 - 공공부문에서는 사무실 및 관공서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대비 77.5%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전년대비 재건축주택 및 재개발주택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231.7% 증가
- 5월 기준 서울 주택매매가격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 또는 보합세
 - 서울(-0.2%)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달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
- 5월 주택전세가격 서울 대부분의 지역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2개월째 상승세 둔화
 - 서울(0.2%)은 강북지역(0.2%)과 강남지역(0.3%) 모두 전월대비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고 전국평균을 하회하며 상대적인 안정세를 보임

금융

- 4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4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14조 555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0.98% 증가
- 4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946개로 전월대비 4.8%(98개) 감소
- 4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1개로 전월대비 14.6%(7개) 감소
- 5월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서울의 수출은 39.2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77.1% 증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다음은 자동차부품, 편직물, 반도체 등의 순
 - 5월 서울의 수입은 85.0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53.9% 증가.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항공기 및 부품 등의 순

| 생 · 산 |

5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시 산업생산지수는 91.7(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1.8% 증가
- 업종별로는 기계장비(-30.6%) 등은 감소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30.3%), 전기장비(47.0%), 섬유제품(36.6%) 등에서 증가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 부문 감소, 경공업 부문 증가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하며 마이너스 증가세 유지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9.7% 증가하여 3개월째 플러스 성장세 유지

■ 5월 전국의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전국의 산업생산지수는 140.0(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21.5% 증가
- 부문별로는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11.2%)는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34.1%), 기계장비(57.7%) 등의 호조와 기저효과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전문·과학·기술(11.2%),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2.7%) 등은 증가하였으나, 교육(-16.2%), 부동산임대(-4.7%), 운수(-0.7%) 등에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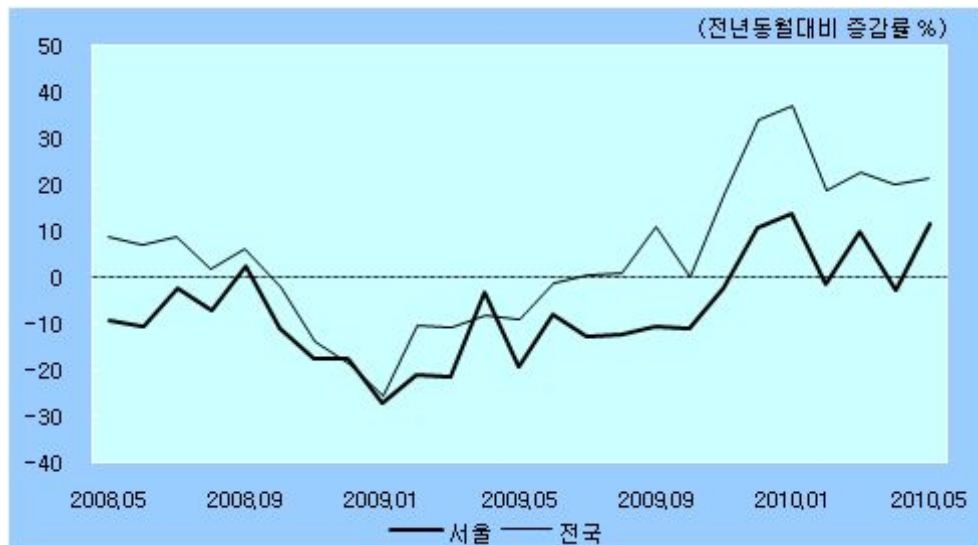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비, %)

구 분		2009년	2010년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p
전 년 동 월 비	서울 (제조업)	-19.1	14.0	-1.6	9.7	-2.7	11.8
	중공업	-23.4	14.4	5.3	15.7	-23.8	-1.9
	경공업	-16.6	13.9	-4.4	7.3	10.4	19.7
	전국	-9.1	37.0	18.9	22.7	20.1	21.5

주: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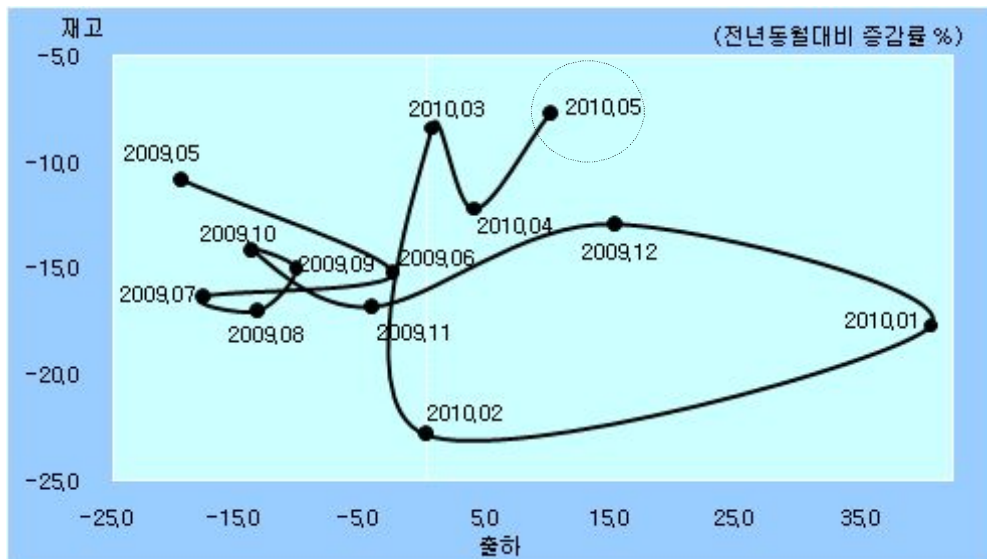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5월 서울 제조업부문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

■ 5월 서울의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재고 감소, 출하 증가

- 5월 서울의 재고지수는 145.2(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7.7% 감소,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식료품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섬유제품 등에서 감소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90.9(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9.9% 증가,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은 감소하였으나, 전기장비 등에서 증가
- 출하 증가, 재고 증가로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전월대비 재고율 증가, 부문별로는 중공업, 경공업 각각 증가

- 5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57.0%로 전월대비 14.8%p 증가하였고, 전국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94.0%로 전월대비 0.1%p 감소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3.5%p 증가한 177.5%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19.0%p 증가한 94.0%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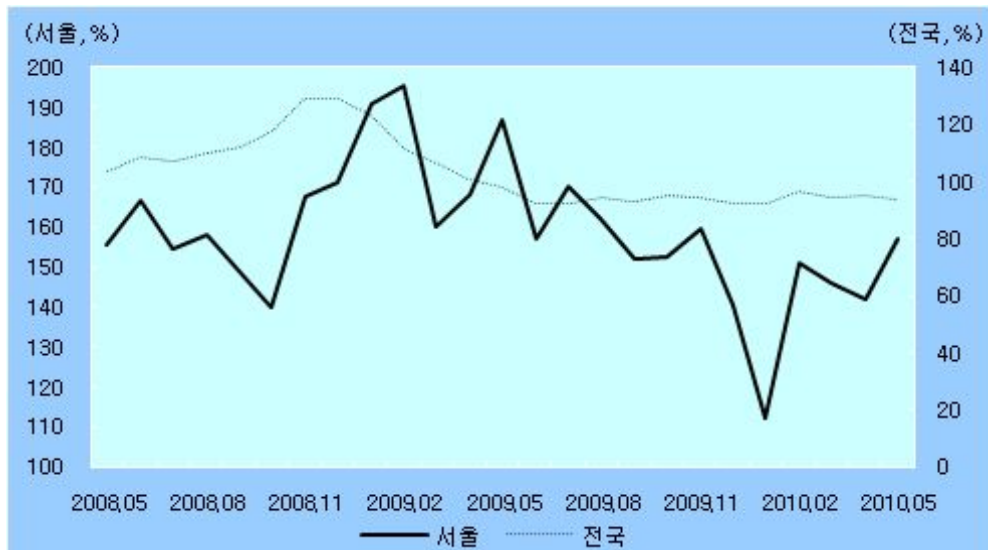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
		5월	1월	2월	3월	4월p	5월p	
재고율	서울	186.8	112.1	150.9	146.1	142.2	157.0	14.8
	중공업	157.0	168.8	154.2	183.5	174.0	177.5	3.5
	경공업	198.5	93.6	144.9	128.8	127.1	146.2	19.0
	전국	97.9	92.2	96.3	94.6	95.0	94.0	-1.0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5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6,284억으로 전년동월대비 7.4%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1.9% 증가, 대형마트 1.6%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백화점의 경우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역시 3개월 연속 상승. 계절의 변화로 소비활동 증가로 판매액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 5월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조8,823억으로 전년동월대비 7.0% 증가함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9.3%, 대형마트는 2.5% 증가함
- 유형별로는 승용차, 컴퓨터, 통신기기 등의 내구재가 1.8%, 오락, 의복 등의 준내구재 7.4%, 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2.7% 각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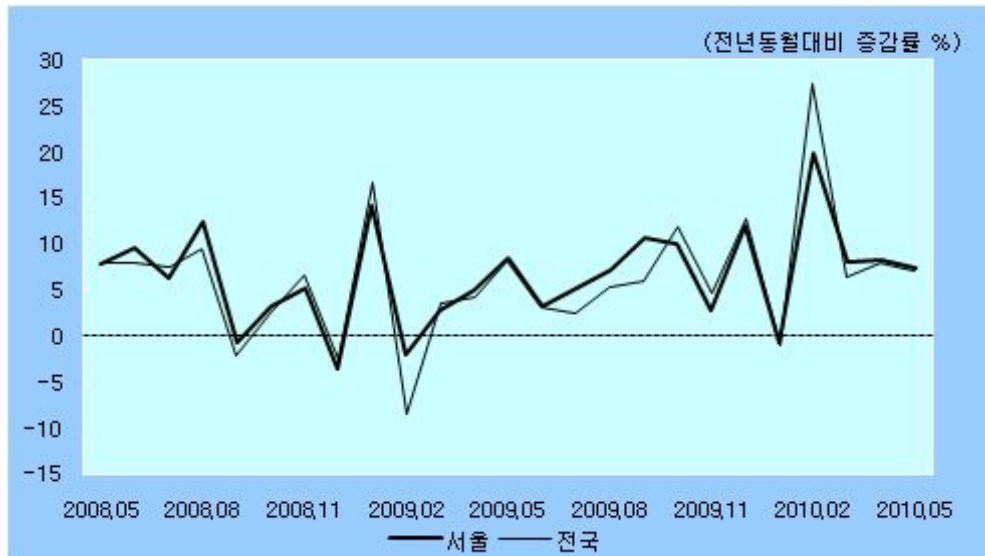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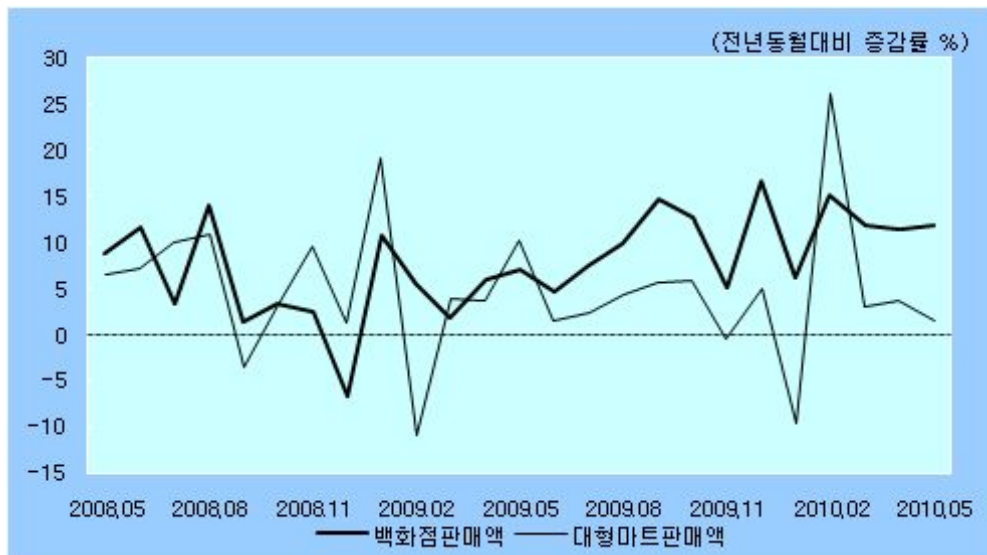
구 분		2009년	2010년				
		5월	1월	2월	3월	4월p	5월p
판매액	서울	1515.7 (8.5)	1571.8 (-0.7)	1529.7 (19.8)	1521.3 (8.0)	1544.1 (8.2)	1628.4 (7.4)
	백화점	855.4 (7.1)	943.0 (6.3)	852.1 (15.2)	886.2 (11.9)	936.6 (11.4)	957.5 (11.9)
	대형마트 (할인점)	660.3 (10.3)	628.8 (-9.7)	677.6 (26.1)	635.1 (3.0)	607.4 (3.6)	670.9 (1.6)
	전국	4562.3 (8.2)	4738.6 (-1.1)	4805.4 (27.4)	4586.5 (6.4)	4501.4 (7.9)	4882.3 (7.0)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5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포함

■ 5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포함

- 서울의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5.0(전도시:115.0, 2005년=100)로 전월대비 0.0% 포함, 전년동월대비 2.5% 상승
- 서비스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1% 각각 상승

■ 5월 서울의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각각 하락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2.6%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4.2% 하락, 전년동월대비 7.9% 상승

■ 5월 전국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상승하여 7개월째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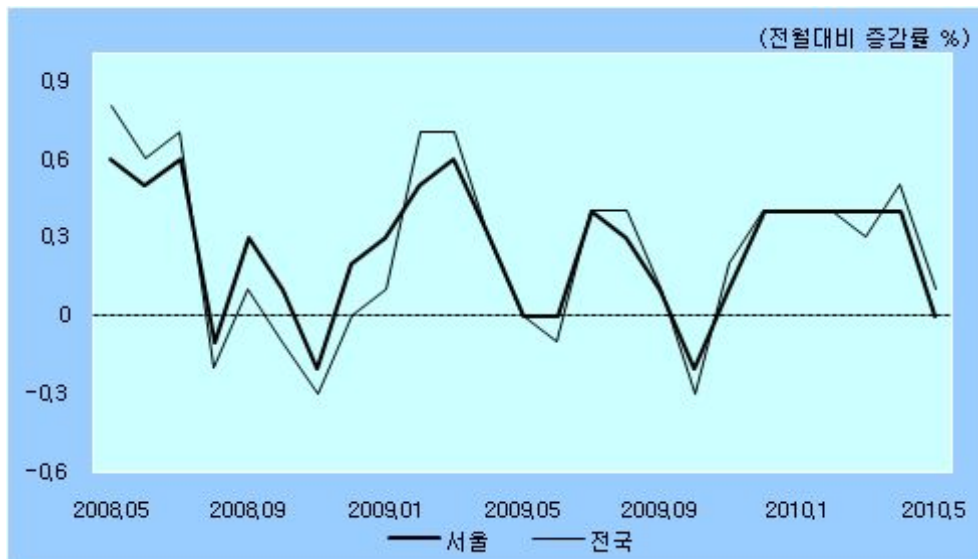
- 전국의 5월 전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로 전월대비 0.1%로 상승하여 11월 이후 7개월째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3.0%, 전년동기대비 3.2% 각각 상승
- 16개 시도별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서울, 인천 등 5개 시도는 변동이 없으며, 부산, 대구, 대전 등 11개 시도는 0.1~0.3% 상승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비	서울		0.0 (3.0)	0.4 (2.6)	0.4 (2.7)	0.4 (2.6)	0.4 (2.3)	0.4 (2.5)	0.0 (2.5)
	상품 성질별	상품	-0.1 (4.4)	0.6 (4.2)	0.6 (4.2)	0.3 (3.3)	0.6 (2.8)	0.9 (3.2)	-0.3 (3.1)
		서비스	0.0 (2.3)	0.2 (1.8)	0.3 (2.0)	0.4 (2.2)	0.3 (2.1)	0.2 (2.1)	0.2 (2.2)
	생활물가		-0.2 (2.4)	0.4 (3.2)	0.6 (3.4)	0.4 (3.3)	0.5 (2.9)	0.5 (2.7)	-0.3 (2.6)
	신선식품		-1.8 (14.4)	5.0 (5.2)	6.5 (4.5)	3.1 (6.0)	5.0 (7.8)	6.2 (10.5)	-4.2 (7.9)
	전국		0.0 (2.7)	0.4 (2.8)	0.4 (3.1)	0.4 (2.7)	0.3 (2.3)	0.5 (2.6)	0.1 (2.7)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5월 서울의 신선식품 중 쌀, 배추, 양파를 제외한 모든 품목 전월대비 가격 상승

- 소비자들의 52개 생활필수 품목 중 신선식품의 전월대비 가격동향은 청과류의 경우 평균 22.75% 하락, 나머지 양곡과 수산물의 경우 평균 0.93% 상승
- 청과류 중 무는 전월대비 13.60%, 마늘은 19.98%, 파는 1.22% 각각 상승, 그 외 배추 (70.89%), 양파(77.68%) 각각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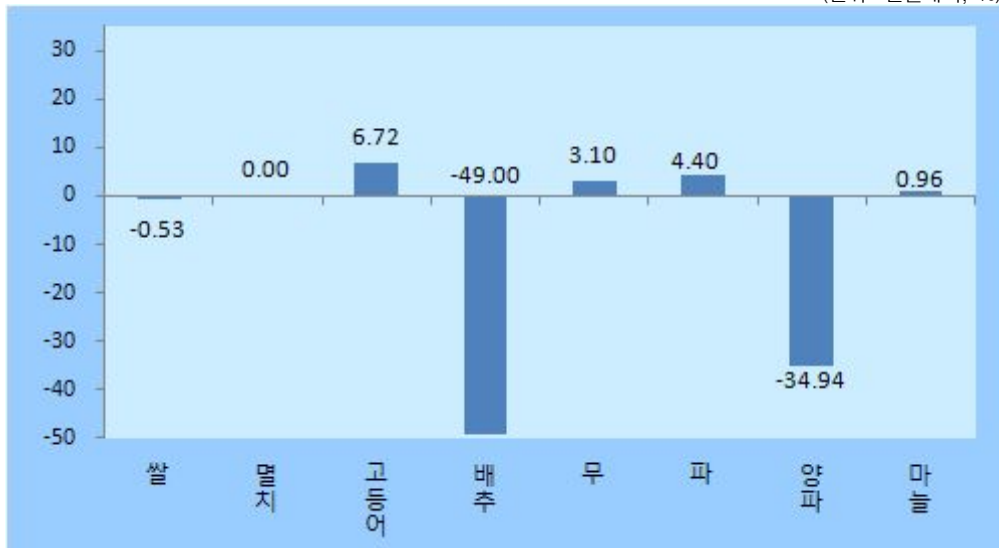
〈표〉 신선식품 가격동향

(단위: 전월비, 원,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증감율
양곡	쌀	34,200	34,200	33,864	33,545	32,774	-2.35
수산	멸치	19,250	21,842	22,500	24,818	25,000	0.73
	고등어	2,800	3,100	3,359	3,345	3,500	4.43
청과	배추	475	711	1,041	1,268	742	-70.89
	무	303	370	476	648	750	13.60
	파	1,180	1,589	1,450	1,695	1,716	1.22
	양파	600	685	970	1,393	784	-77.68
	마늘	3,610	3,774	3,800	3,800	4,749	19.98

주: 52개 생활필수품목 중 신선식품만 선별하여 가격동향을 살펴보았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단위: 전월대비, %)



주: 쇠고기(한우지육 1kg), 돼지고기(돈육거세 1kg), 멸치(건증멸치 중품), 고등어 (중품),
 배추(월동 중품, 봄 중품), 무(가을 중품), 파(대파 중품), 양파 (중품), 마늘(깐마늘 중품) 도매가 기준
 <그림> 서울시 농수산물 시장의 월간 등락품목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5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5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5월 15세 이상인구는 8,38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천명(0.8%)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 인구는 5,21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9천명(2.3%)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남자는 73.0% 여자는 52.1%로 나타남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16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천명(-1.7%) 감소

■ 5월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 5월 15세 이상인구는 40,53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6천명(1.3%)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5,09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1천명(1.8%)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635천명으로 180천명(1.2%)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464천명으로 261천명(2.6%)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경제활동 인구	서울	-1.3 (0.2)	0.7 (-0.2)	0.7 (0.1)	2.2 (0.2)	0.8 (0.2)	2.0 (1.5)	2.3 (0.5)
	남자	-0.9 (0.7)	1.0 (-0.2)	0.7 (0.0)	1.5 (-0.1)	0.6 (0.3)	1.4 (0.9)	0.4 (-0.3)
	여자	-1.8 (-0.6)	0.4 (-0.1)	0.8 (0.2)	3.2 (0.6)	1.2 (0.1)	2.8 (2.3)	5.0 (1.5)
	전국	-0.1 (0.8)	0.1 (-2.3)	1.6 (0.1)	1.6 (-0.2)	1.3 (1.4)	1.6 (2.0)	1.8 (1.0)
경제활동 참가율	서울	61.3	60.9	60.9	61.0	61.1	62.0	62.2
	남자	73.2	72.6	72.5	72.4	72.6	73.2	73.0
	여자	50.0	49.9	49.9	50.2	50.2	51.3	52.1
	전국	61.6	59.7	59.6	59.5	60.3	61.4	61.9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취 · 업 · 자 |

5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0.5% 증가

■ 5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 여성 취업자 증가

- 5월 서울의 취업자는 4,99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1천명(2.9%)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21천명, 여자는 2,17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7천명(0.6%), 여자는 123천명(6.0%)이 각각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1천명(17.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83천명(4.5%), 전가운수·통신·금융업 25천명(3.3%), 도소매·음식숙박업 38천명(2.8%), 제조업 3천명(0.5%)이 각각 증가한 반면, 건설업 8천명(-2.2%)이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0.4%) 3.4%p 차이를 나타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6.2%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감

■ 5월 전국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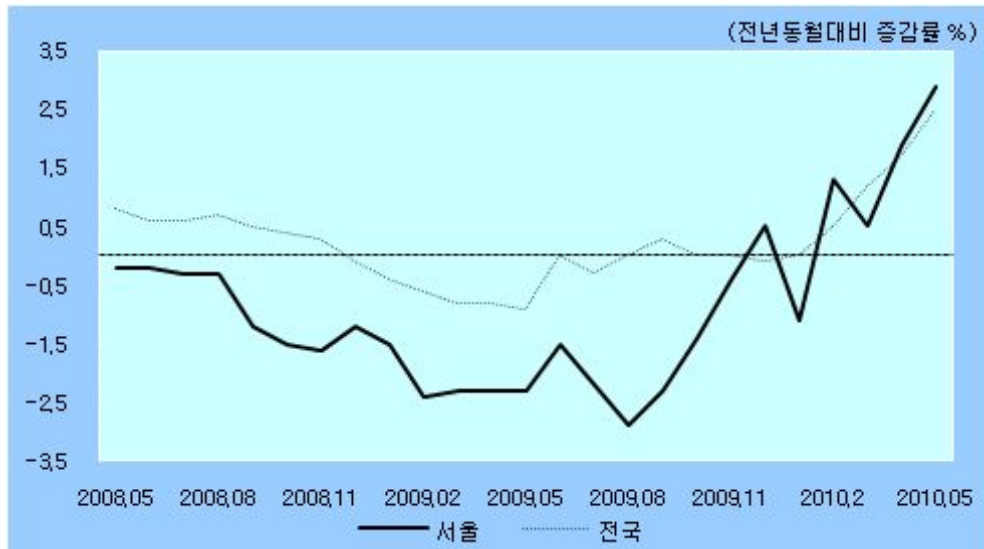
- 전국의 5월 취업자는 24,30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86천명(2.5%)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11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8천명(1.9%) 증가하였고, 여자는 10,190천명으로 318천명(3.2%) 증가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는 감소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4% 감소,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5.8% 증가

〈표〉 연령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취업자	서울	-2.3 (0.4)	0.5 (0.0)	-1.1 (-1.9)	1.3 (0.4)	0.5 (0.9)	1.9 (1.6)	2.9 (1.4)
	남자	-2.2 (1.3)	1.4 (0.1)	-0.9 (-2.4)	0.9 (0.1)	0.9 (1.1)	1.0 (0.6)	0.6 (0.9)
	여자	-2.5 (-0.7)	-0.7 (-0.2)	-1.4 (-1.3)	1.7 (0.8)	0.1 (0.6)	3.1 (3.1)	6.0 (2.1)
	전국	-0.9 (0.8)	-0.1 (-2.4)	0.0 (-1.6)	0.5 (0.0)	1.2 (2.2)	1.7 (2.3)	2.5 (1.6)
청년층 취업자	서울	-2.3 (2.1)	-2.0 (2.5)	-4.2 (-0.7)	-2.1 (-1.1)	-4.9 (-3.0)	-6.0 (2.6)	-3.8 (4.4)
	전국	-2.7 (1.6)	-0.3 (0.6)	0.3 (1.1)	-0.4 (-2.3)	-0.9 (-1.8)	-1.8 (2.0)	-0.4 (3.1)
고령층 취업자	서울	-4.6 (0.6)	13.5 (-2.2)	3.8 (-10.1)	6.7 (0.6)	9.4 (8.1)	13.6 (4.5)	16.2 (2.9)
	전국	0.0 (3.0)	-1.9 (-14.0)	-4.5 (-8.0)	-1.7 (3.0)	0.5 (12.7)	4.0 (9.4)	5.8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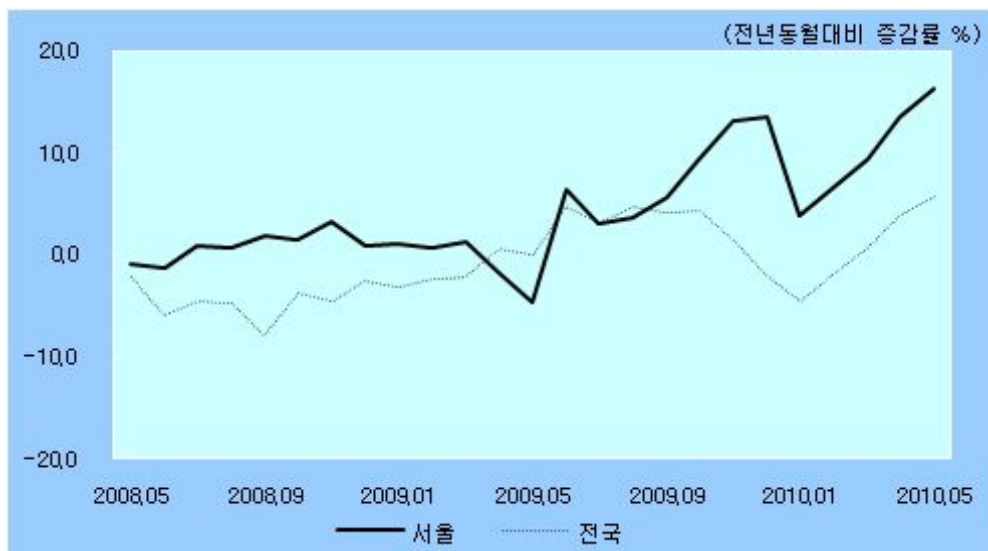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서울의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단순종사자 등은 증가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천명(73.7%),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35천명(10.4%),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7천명(1.2%)이 각각 증가
- 서비스·판매종사자 11천명(-0.9%), 사무종사자 3천명(-0.3%)이 각각 감소

■ 서울의 비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감소,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비임금근로자는 1,220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77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12천명(-1.0%)이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53천명(4.2%)이 증가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9천명(-1.8%)이 감소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7천명(3.9%)이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22천명(6.2%), 임시근로자는 106천명(9.2%)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75천명(-14.9%)이 감소

■ 서울의 36시간 미만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일시휴직자는 감소

- 36시간미만 취업자는 61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명(4.3%)이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도 4,33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9천명(2.8%)이 증가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천명(5.2%)이 증가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도 14천명(3.7%)이 증가
- 36시간 이상 취업자 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30천명(4.7%)이 증가하였고,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11천명(-0.8%)이 감소
- 일시휴직자는 4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6.7%)이 감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3시간 감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산업별	제조업	-15.5 (4.5)	-4.9 (1.1)	-7.5 (0.1)	0.3 (2.1)	-7.2 (3.2)	5.1 (3.1)	0.5 (-0.1)
	SOC 및 기타서비스업	-0.3 (-0.1)	1.2 (-0.2)	-0.3 (-2.1)	1.4 (0.2)	1.6 (0.6)	1.5 (1.5)	3.2 (1.6)
	사업·개인·공공서비스	4.7 (0.4)	1.2 (-1.5)	-1.0 (-4.0)	0.0 (1.7)	1.9 (1.4)	2.8 (3.5)	4.5 (2.0)
	도소매·음식숙박	-2.0 (-0.8)	2.4 (0.9)	3.0 (-0.5)	3.2 (-1.2)	1.0 (-1.8)	-0.4 (-1.0)	2.8 (2.4)
	전기·운수·통신·금융	-0.2 (0.6)	5.2 (2.0)	2.8 (1.0)	6.6 (0.3)	6.7 (-0.8)	4.0 (0.7)	3.3 (0.0)
	건설업	-15.8 (-1.2)	-10.6 (-2.0)	-14.6 (-5.9)	-9.3 (-2.4)	-7.5 (9.0)	-3.6 (2.4)	-2.2 (0.2)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0.3 (-0.9)	2.0 (-0.5)	1.2 (-1.1)	-0.7 (-0.6)	0.6 (-0.3)	0.2 (2.0)	1.2 (0.0)
	기능·기계작·조립·단순종사자	-9.7 (2.8)	-1.9 (-1.8)	-4.9 (-4.7)	3.4 (3.3)	2.9 (5.9)	10.6 (4.0)	10.4 (2.5)
	서비스·판매종사자	-1.7 (0.0)	-1.2 (0.6)	-0.4 (1.2)	0.6 (-1.8)	-1.5 (-1.8)	-2.4 (-1.1)	-0.9 (1.5)
	사무종사자	5.2 (0.0)	4.5 (2.5)	-0.1 (-3.6)	2.4 (1.3)	-0.2 (-1.1)	-2.1 (1.3)	-0.3 (1.8)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2.7 (-0.1)	0.8 (-0.2)	-2.3 (-3.0)	0.7 (0.7)	-0.1 (1.0)	1.8 (2.0)	4.2 (2.3)
	비임금근로자	-1.1 (2.0)	-0.4 (0.5)	2.6 (1.4)	2.9 (-0.4)	2.6 (0.5)	2.3 (0.7)	-1.0 (-1.3)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5월 서울의 실업률 하락, 고용률은 상승

■ 5월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국대비 높은 수준

- 5월 실업자는 21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천명(-9.1%)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4.1%)이, 여자는 70천명으로 16천명(-18.2%)이 각각 감소
-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로 전년동월대비 0.2%p, 여자는 3.1%로 0.9%p 각각 하락

■ 5월 전국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5월 실업자는 79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5천명(-15.4%)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1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8천명(-14.5%) 감소하였고, 여자는 27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7천명(-17.2%) 감소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5%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하였고, 여자는 2.6%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계절조정 실업률은 3.2%로 전월대비 0.5%p 하락

■ 5월 서울의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국의 고용률 보다 높은 수준

- 서울의 5월 고용률은 59.6%로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3%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여자는 50.4%로 2.4%p 상승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60.0%)에 비해 1.2%p 높은 수준임
- 전국의 5월 고용률은 60.0%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1.2%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고, 여자는 49.2%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
- 연령계층별로 보면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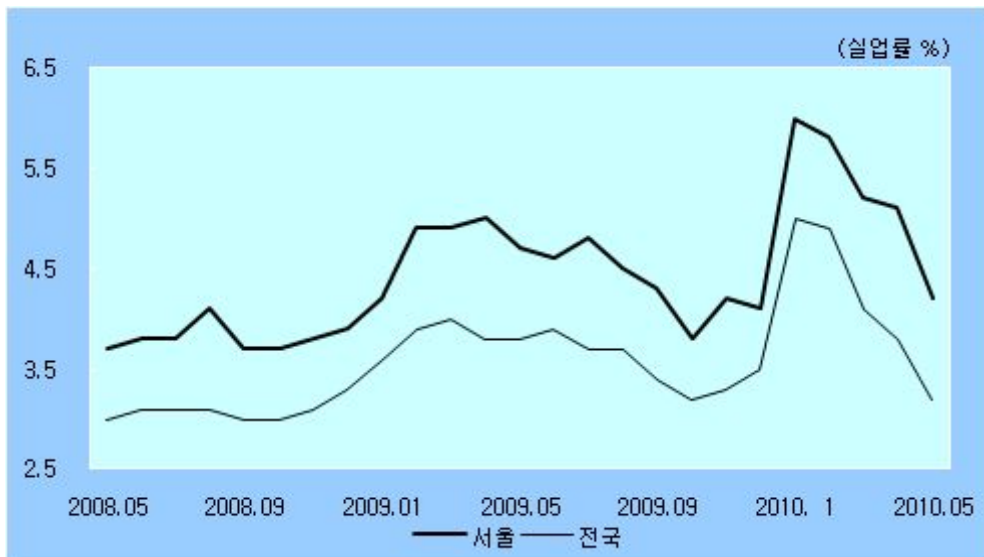
〈표〉 서울의 실업 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실업률	서울	4.7	4.1	6.0	5.8	5.2	5.1	4.2
	남자	5.2	4.4	6.7	6.5	5.8	6.1	5.0
	여자	4.0	3.6	5.1	4.9	4.5	3.7	3.1
	전국	3.8	3.5	5.0	4.9	4.1	3.8	3.2

		2008년		2009년				2010년
		1/4	4/4	1/4	2/4	3/4	4/4	1/4
청년층 실업률	서울	8.4	7.0	8.9	7.8	8.4	7.8	10.0
	전국	7.3	7.0	8.6	8.0	8.1	7.6	9.5
고령층 실업률	서울	2.6	1.2	2.0	3.2	2.0	1.7	7.2
	전국	1.6	1.1	1.6	1.9	1.6	1.5	5.8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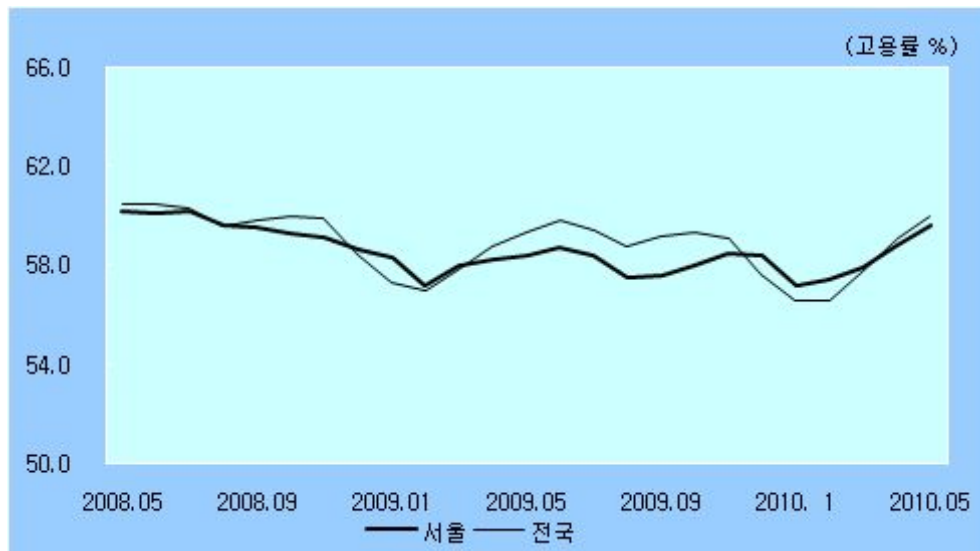
〈표〉 서울의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고용률	서울	58.4	58.4	57.2	57.4	57.9	58.8	59.6
	남자	69.4	69.4	67.6	67.7	68.4	68.8	69.3
	여자	48.0	48.1	47.4	47.7	48.0	49.4	50.4
	전국	59.3	57.6	56.6	56.6	57.8	59.1	60.0

		2008년		2009년				2010년
		1/4	4/4	1/4	2/4	3/4	4/4	1/4
청년층 고용률	서울	46.1	43.9	45.6	43.8	42.8	42.8	40.1
	전국	42.0	39.9	41.1	40.7	40.1	40.1	36.4
고령층 고용률	서울	30.5	28.7	30.3	31.1	32.5	29.4	42.8
	전국	33.9	33.2	38.3	38.9	36.4	31.4	32.5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고용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4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대폭 증가

■ 4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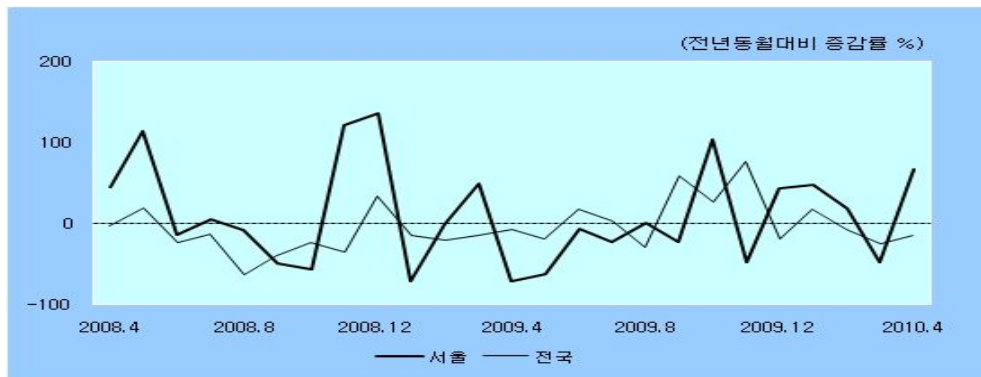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32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6.6% 증가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6조 4,18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6%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16.1%를 차지
- 공공부문에서는 사무실 및 관공서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대비 77.5%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전년대비 재건축주택 및 재개발주택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231.7% 증가
- 공종별로는 전년대비 건축부문은 108.9% 증가, 토목부문은 47.5% 감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4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서울	620	5,357	933	1,293	891	1,032	66.6	15.8
발주 자별								
공공	256	1089	109	362	213	58	-77.5	-72.8
민간	293	4,247	778	931	606	973	231.7	60.6
공종 별								
건축	452	4,627	828	1,094	705	944	108.9	33.9
토목	168	730	105	199	186	88	-47.5	-52.7
전국	7,513	17,611	6,643	4,615	5,590	6,418	-14.6	14.8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 또는 보합세

■ 5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13개월간의 상승세를 접고 보합으로 전환

- 5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계절적인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13개월간의 상승세를 접고 전월대비 보합으로 전환됨. 지난해부터 지속된 금융규제 강화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장기평균(0.1%)을 하회하는 수준이 유지된 가운데,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매수세가 위축되는 모습

■ 서울 주택매매가격 지난달에 이어 하락세 지속

- 서울(-0.2%)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달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
-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 또는 보합세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5월	4월	5월		
서울		99.4	103.0	102.8	3.5	-0.2
아파트		99.2	102.7	102.4	3.2	-0.4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99.1	102.1	102.0	2.9	-0.2
	강남	99.6	103.9	103.7	4.1	-0.3
전 국		99.2	102.3	102.4	3.2	0.0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지역 두달 연속 하락

- 강북지역(-0.2%)에서는 은평구(0.1%)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며 두 달 연속 하락하였고, 노원구(-0.5%), 서대문구(-0.4%), 성북구(-0.3%), 도봉구(-0.3%)에서 하락을 주도함
- 노원구(-0.5%)는 보금자리주택으로의 관심 이동 및 경기침체와 대출규제, 인근 남양주 진접지구, 양주 고읍지구 등 입주 물량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달에 이어 강북지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임
- 성북구(-0.3%)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수세가 실종된 가운데 5월 미아 뉴타운 및 6월 길음 뉴타운 입주예정물량 증가의 영향으로 급매물이 적체되면서 하락함

■ 강남지역 14개월만에 하락 반전

- 강남지역(-0.3%)에서는 관악구(0.1%)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며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만에 하락 반전됨. 강동구(-0.7%), 강남구(-0.5%), 송파구(-0.3%), 강서구(-0.3%)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짐
- 강동구(-0.7%)는 강일 2지구 장기전세주택(1,272세대) 6월 공급예정, 보금자리주택 등의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심화되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함
- 강남구(-0.5%)는 개포, 은마 등 재건축아파트 가격하락 및 유럽발 금융위기설 등의 불안심리로 매수관망세가 지속되면서 하락함

■ 5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5월 28일 기준)은 1,826.58만원으로 전월(1,839.49만원) 대비 대폭 하락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354만원), 서초구(2,861만원), 용산구(2,579만원), 송파구(2,430만원), 양천구(1,988만원), 강동구(1,895만원), 광진구(1,889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30만원), 도봉구(1,131만원), 중랑구(1,138만원), 강북구(1,15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남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2개월째 상승폭 축소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2개월째 상승세 둔화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계절적인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수급불균형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2개월째 상승폭은 축소되었으나 2009년 3월 이후 15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함
- 서울(0.2%)은 강북지역(0.2%)과 강남지역(0.3%) 모두 전월대비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고 전국평균을 하회하며 상대적인 안정세를 보인 반면, 기타지방(0.4%)과 광역시(0.6%)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감

■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2개월째 상승세 둔화

- 강북지역(0.2%)에서는 마포구(0.6%), 성동구(0.5%), 광진구(0.5%)를 중심으로 상승하였고, 노원구(-0.2%)는 전월대비 하락함
- 마포구(0.6%)는 계절적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재울뉴타운 이주수요 등으로 전세수급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상승하였고, 성동구(0.5%)는 금호동, 옥수동 재개발 이주수요로 인한 물량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사격이 상승함
- 노원구(-0.2%)는 인근 남양주 인접지구, 양주 고읍지구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함
- 강남지역(0.3%)에서는 강서구(0.4%), 동작구(0.4%), 영등포구(0.4%)가 상승을 주도하였고, 서초구(-0.1%)는 전월대비 하락함
- 강서구(0.4%)는 지하철 9호선 개통 이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소형 아파트 위주의 전세물량 부족으로 상승함. 동작구(0.4%)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수관망세가 지속되며 전세유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역세권 주변 교통환경이 편리한 단지 위주로 신혼부부 및 도심업무지구로의 출퇴근 수요가 더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함.
- 서초구(-0.1%)는 학군 수요가 무뎠어지고 신혼부부 수요가 감소하는 등 계절적인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전세거래가 한산해짐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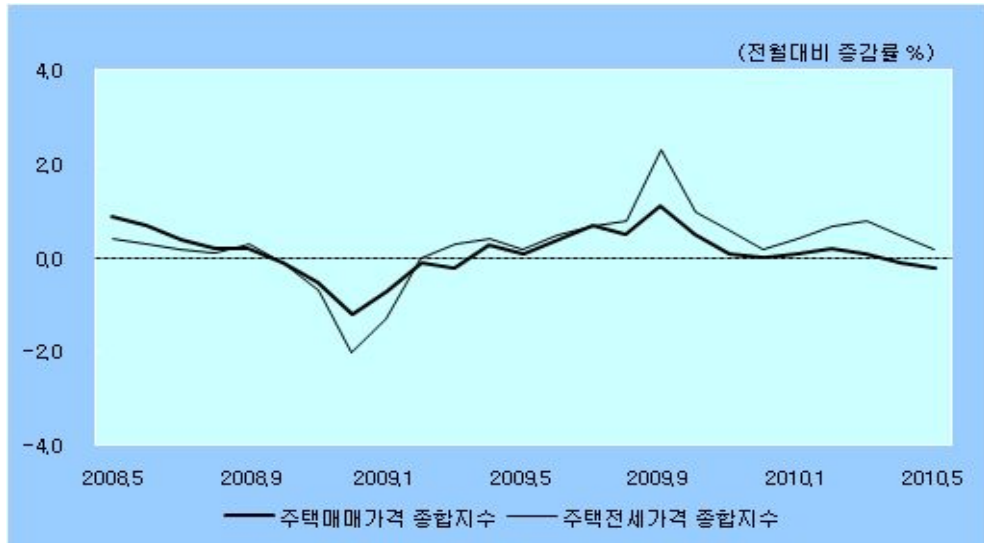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5월	4월	5월		
서울		99.7	108.5	108.8	9.1	0.2
아파트		100.2	111.1	111.4	11.2	0.3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99.1	106.2	106.4	7.4	0.2
	강남	100.3	110.8	111.1	10.8	0.3
전국		99.3	105.7	106.1	6.9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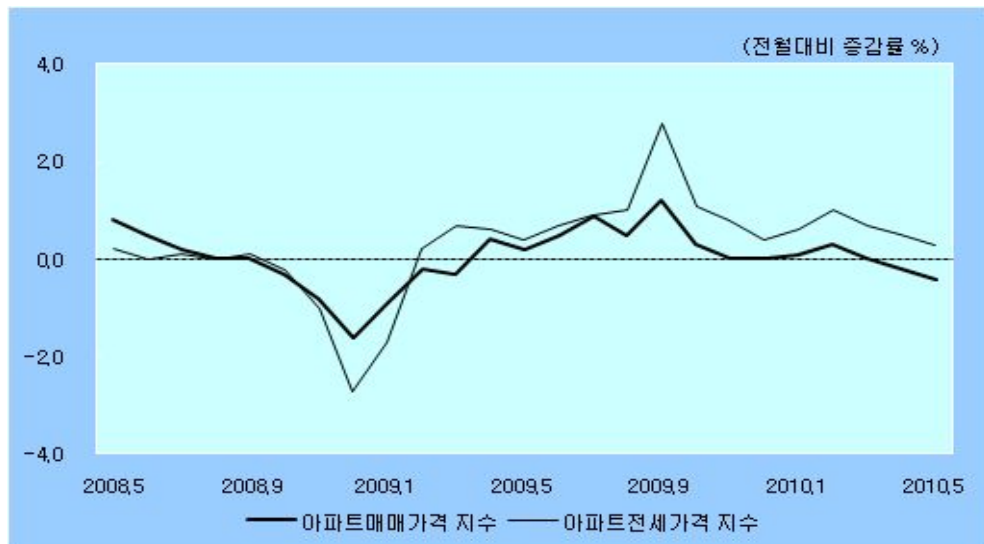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

- 5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1.8%로 전월(41.5%)보다 0.3%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2009년 12월 40.6% → 2010년 1월 40.7% → 2월 41.0% → 3월 41.3% → 4월 41.5%)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3월 전국 평균 55.0%보다 13.2%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 전월(13.3%p)보다 소폭 하락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4.4%, 강남 39.6%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4.8%p이며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5월 국고채 금리 상승 후 다시 하락

■ 5월 중 국고채 금리 상승 후 다시 하락

- 통화정책기조 전환 우려 등으로 상당 폭 올랐다가 하반기 이후 남유럽국가 재정위기 및 천안함 사태로 인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향후 경기회복세 둔화 가능성이 제기된 데다 외국인이 순매수를 확대함에 따라 하락
- 6월 들어서는 1/4분기 GDP 성장률(잠정) 발표, 헝가리 재정문제 등으로 큰 폭으로 등락

■ 회사채 금리 상승세 지속

- 회사채(3년) 금리는 국내외 금융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월중 상승세 지속
- CD(91일) 금리는 여타 단기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발행수요 저조 등으로 2.45%를 유지

■ KOSPI 지수 상당 폭 반등

- 5월 중 코스피는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우려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세하여 1,561p(5.25일)까지 급락하였으나 월말 경 저가매수자금 유입, 불안심리 완화 등으로 상당 폭 반등(2월말 1,595p → 3월말 1,693p → 4월말 1,742p → 5.25일 1,561p → 5월말 1,641p)
- 6월 들어서는 헝가리 재정문제 등으로 크게 하락한 후 반등하는 등 불안한 움직임

■ 5월중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 외국인은 5월중 국내주식을 대규모로 순매도하여 추가하락을 주도
- 다만, 월말 경에는 순매도세가 약화
외국인 순매수(조원): 1월 0.7조원 → 2월 -0.0조원 → 3월 5.4조원 → 4월 5.5조원
→ 5월 -6.3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간 중 평균, 단위: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 (B-A)
		5월	2월	3월	4월(A)	5월(B)	6.23일	
금리	국고채(3년)	3.83	4.19	3.94	3.77	3.70	3.93	-0.07
	CD(91일물)	2.41	2.88	2.83	2.51	2.45	2.45	-0.06
	콜금리(1일)	1.91	2.00	2.01	2.00	2.01	1.97	0.01
	장단기 금리차 ¹⁾	1.42	1.31	1.11	1.26	1.25	1.48	-0.01
주 가	KOSPI	1,400.50	1598.96	1665.50	1730.29	1,648.30	1,725.82	-81.99
	KOSDAQ	533.82	505.32	518.70	512.86	497.85	494.95	-15.01
환율 (₩/US\$)		1,255.62	1,156.83	1,136.11	1,115.71	1,168.41	1,187.50	52.70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5월중 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

- 은행의 우량고객 확보 노력 지속, 계절요인(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 등으로 신용대출이 큰 폭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여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
-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주택거래가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 하락, 일부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 등으로 증가규모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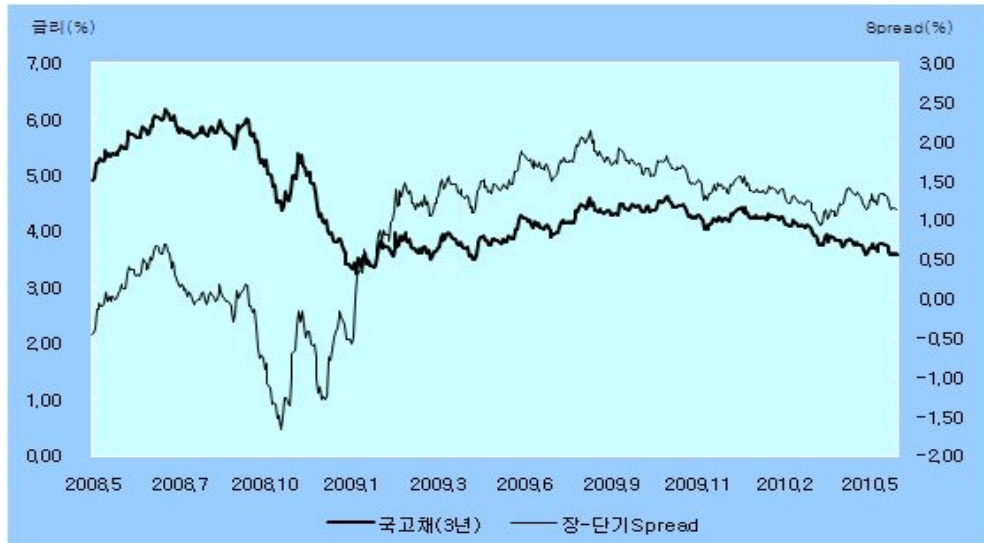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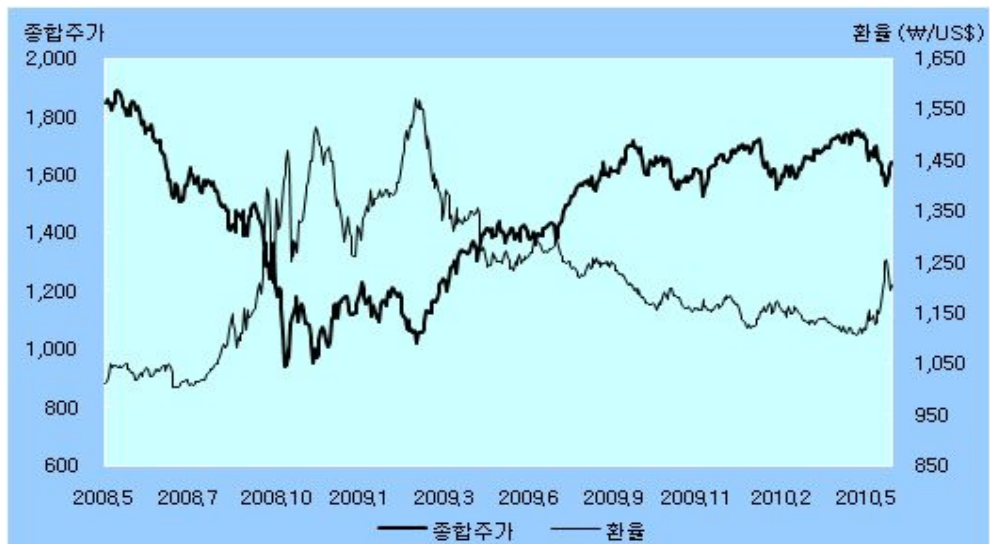
구 분		2009년	2010년					월말잔액	
		연중	1월	2월	3월	4월	5월	2010년	
								4월	5월
가계대출 ¹⁾		20.1	-1.0	-0.2	1.9	1.7	4.4	411.0	415.4
주택담보대출 ²⁾		25.4	0.6	0.7	2.5	1.8	1.7	269.0	270.7
마이니스통장대출 등		-4.5	-1.6	-0.9	-0.6	0.0	2.7	141.0	143.7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4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4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14조 555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4조 9,901억원 (0.98%) 증가
- 4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278조 6,494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 44억원 (0.55%)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액	전월대비 증감률
		12월	1월	2월	3월	4월		
서울	예금은행	416,976.70	414,043.1	415,482.2	415,746.7	419,168.0	3,421.3	0.82
	비은행기관	84,909.10	92,677.0	93,255.1	93,318.7	94,887.5	1,568.8	1.68
	합계	501,885.80	506,720.1	508,737.3	509,065.4	514,055.5	4,990.1	0.98
전국	예금은행	940,529.80	955,782.2	958,052.8	962,695.9	967,784.2	5,088.3	0.53
	비은행기관	283,248.50	306,344.0	307,711.4	308,949.1	310,865.2	1,916.1	0.62
	합계	1,223,778.30	1,262,126.2	1,265,764.2	1,271,645.0	1,278,649.4	7,004.4	0.55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신 · 설 · 법 · 인 · 동 · 향 |

4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4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946개로 전월대비 4.8%(98개)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4.3%(80개) 증가
- 4월 전국의 신설법인은 5,508개로 전월비로는 2.5%(144개)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비 9.3%(470개) 증가하여 2009년 6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서울 모든 업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4월 중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1.3%(20개) 증가, 제조업 14.1%(35개) 증가하였고, 건설 및 설비업은 27.0%(3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업종에서 신설법인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며 건설 및 설비업의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2월	1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서울	1,866	1,812	1,633	2,044	1,946	-98	-4.8	80	4.3
서비스업	1,493	1,360	1,247	1,539	1,513	-26	-1.7	20	1.3
제조업	248	286	248	342	283	-59	-17.3	35	14.1
건설 및 설비업	111	150	132	158	141	-17	-10.8	30	27.0
전국	5,038	5,335	4,668	5,652	5,508	-144	-2.5	470	9.3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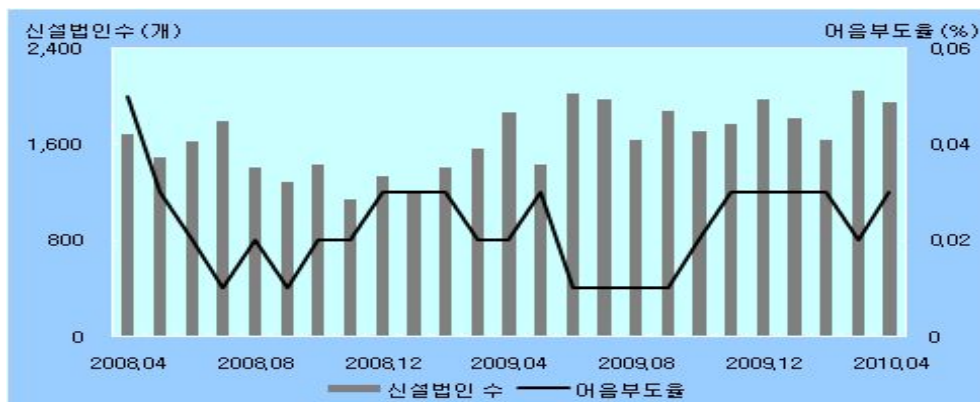
- 서울의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상승, 신설/부도법인 배율 소폭 상승
 - 4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대비(0.02%) 상승한 수준, 전국의 어음부도율도 0.03%로서 전월대비(0.02%) 상승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1개로 전월대비 14.6%(7개) 감소, 전국의 부도업체수는 125개로 전월대비 13.2%(19개) 감소한 수준
 -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55.6배로 전월(55.2배)보다 상승하였고, 전국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60.5배로 전월(53.3배)보다 크게 상승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4월	1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서울	어음부도율	0.02	0.03	0.03	0.02	0.03	0.01	50.0	
	부도업체 수	84	51	38	48	41	-7	-14.6	
	신설/부도법인배율	27.0	51.8	56.3	55.2	55.6	4.5	-	
전국	어음부도율	0.03	0.03	0.03	0.02	0.03	0.01	50.0	
	부도업체 수	219	141	111	144	125	-19	-13.2	
	신설/부도법인배율	32.9	51.8	63.9	53.3	60.5	12.1	-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신용보증 공급건수 및 금액 전월대비 감소

■ 보증 건수 및 금액 전월대비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5월중 5,791건, 117,045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는 17.3%, 금액은 15.8%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건수는 46.9%, 금액은 43.6% 감소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5월	2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10,915	3,988	6,580	7,004	5,791	-1,213	-120.9	-12,128	-111.1
금액	207,449	70,393	131,380	139,032	117,045	-21,987	-118.8	-229,436	-110.6
건당평균 금액	19.0	17.6	20.0	19.9	20.2	0.3	-98.5	-18.7	-98.4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제조업, 음식·숙박업에 대한 지원비중 증가

- 5월 기준 업종별 신용보증지원비중은 건수 기준 시 제조업은 6.03%로 전월(5.65%)대비 0.38%, 음식·숙박업은 18.49%로 전월(18.22%)대비 0.27% 각각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은 35.97%로 전월(38.06%)대비 2.09%감소하였으며, 금액 기준 시 제조업은 7.43%로 전월(6.89%)대비 0.54%, 음식·숙박업은 18.00%로 전월(17.84%)대비 0.16% 각각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은 40.66%로 전월(42.20%)대비 1.54%감소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349	2,083	1,071	914	1,374	5,791
비율	6.03	35.97	18.49	15.78	23.73	100
금액	8,697	47,596	21,065	19,123	20,564	117,045
비율	7.43	40.66	18.00	16.34	17.57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비중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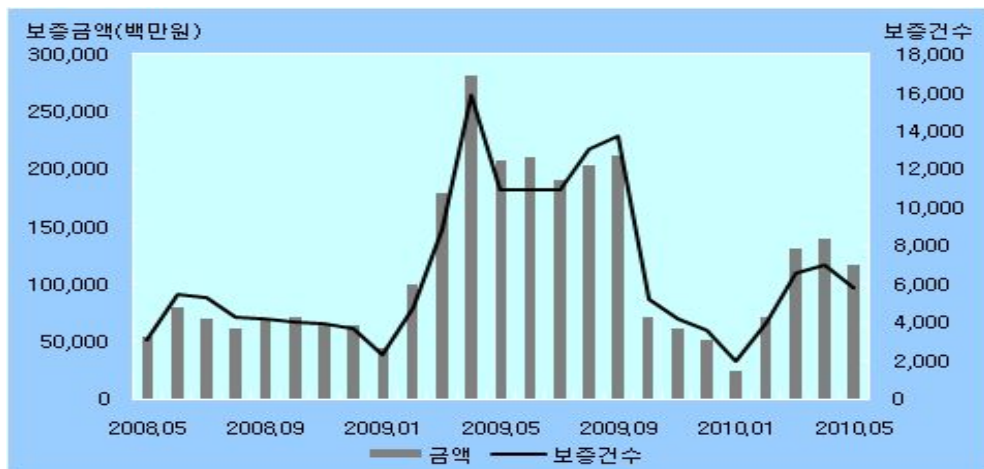
- 5월 기준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비중은 건수 기준 시 소상공인은 96.4%로 전월(96.8%)대비 0.4%감소하였으나, 소기업은 2.8%로 전월(2.6%)대비 0.2% 증가하였으며, 금액기준 시 소상공인은 89.3%로 전월(90.7%)대비 1.4% 감소하였으나 소기업은 7.1%로 전월(6.8%)대비 0.3% 증가하였음.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비중은 건수, 금액에서 2개월 연속 감소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2010.3	2010.4	2010.5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6,401	6,781	5,583	-1,198
	비율	97.3	96.8	96.4	-0.4
	금액	121,757	126,098	104,467	-21,631
	비율	92.6	90.7	89.3	-1.4
소기업	건수	134	182	160	-22
	비율	2.0	2.6	2.8	0.2
	금액	7,282	9,432	8,360	-1,072
	비율	5.6	6.8	7.1	0.3
중기업	건수	45	41	47	6
	비율	0.7	0.6	0.8	0.2
	금액	2,341	3,504	4,220	716
	비율	1.8	2.5	3.6	1.1
합계	건수	6,580	7,004	5,791	-1,213
	비율	100	100	100	0
	금액	131,380	139,032	117,045	-21,987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5월 서울의 수출은 39.2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7.1% 증가하였고, 수입은 85.0억달러로 53.9% 증가
- 5월 전국의 수출은 391.0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0.5% 증가하였고, 수입은 349.7억달러로 49.4% 증가. 무역수지는 41.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4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
- 전국의 5월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승용차 등 주력품목 수출이 급증하며 큰 폭의 수출증가율을 기록, 월 수출액도 사상 네 번째임.
- 전국의 5월 수입은 경기회복에 따라 소비재와 설비투자용 장비 및 원자재 수입이 크게 늘어났음

■ 5월 기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388,604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편직물, 반도체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가장 많아 714,902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항공기 및 부품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로 전년동월대비 752.4% 증가, 수입의 경우 철강판으로 전년동월대비 257.6% 증가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비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서울	수출	2,216	3,111	3,031	3,644	3,770	3,924	1,708	77.1
	수입	5,521	7,237	7,277	8,756	8,924	8,499	2,978	53.9
전국	수출	27,824	31,007	33,138	37,450	39,433	39,099	11,275	40.5
	수입	23,407	31,468	31,062	35,632	35,378	34,971	11,564	49.4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5월		2010년 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2,215,846	-25.5	3,923,603	77.1
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45,592	35.1	388,604	752.4
2	자동차부품	120,915	43.5	357,973	196.1
3	편직물	170,650	-1.8	206,630	21.1
4	반도체	114,325	12.7	193,684	69.4
5	컴퓨터	94,224	-7.4	192,685	104.5
6	합성수지	96,150	30.6	189,281	96.9
7	금은 및 백금	78,715	69.3	161,631	105.3
8	고무제품	101,583	6.9	142,614	40.4
9	무선통신기기	83,205	-43.0	130,114	56.4
10	합성고무	25,899	6.5	107,642	3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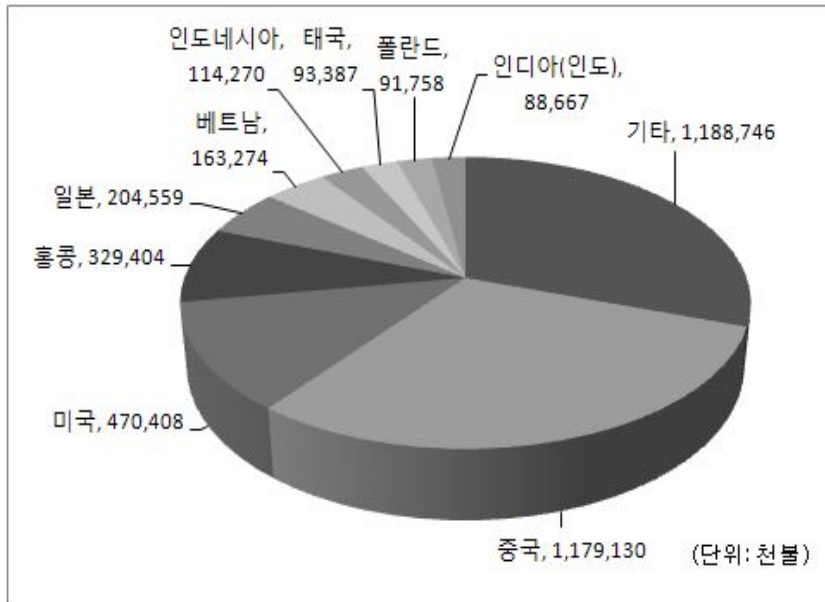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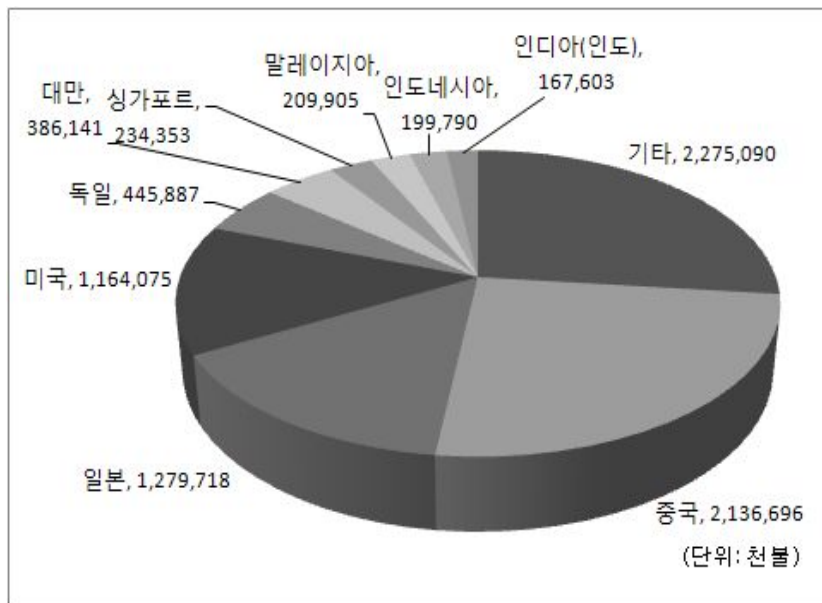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5월		2010년 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5,521,476	-28.8	8,499,258	53.9
1	석유제품	258,481	482.9	714,902	176.6
2	반도체	630,250	47.3	705,621	12.0
3	컴퓨터	355,760	-14.2	490,632	37.9
4	항공기 및 부품	236,539	152.5	257,277	8.8
5	자동차	124,481	6.0	256,943	106.4
6	농약 및 의약품	110,427	-0.7	229,489	107.8
7	플라스틱제품	162,463	130.0	224,425	38.1
8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149,477	20.3	215,243	44.0
9	무선통신기기	119,855	1.9	214,424	78.9
10	철강판	59,403	-31.9	212,405	257.6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